

‘음주운전’ 남원 공무원 승진 취소

지난달 광주~대구 고속도로서 음주측정 요구 거부해 현행법 체포 인사위, 승진 취소 의결...최경식 시장 “공직자 품위 손상 무관용”

경찰의 음주 단속을 거부한 공무원이 과장으로 승진해 논란이 되자 남원시가 해당 공무원의 승진을 전격 취소했다.

남원시는 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근 음주측정 거부 논란을 빚은 사무관 A씨에 대해 승진의결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법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차량이 갓길에 세워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차 안을 살피다 A씨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일 남원 시내에서 회식을 한 뒤 20km 가량 운전을 하다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의 갓길에 정차해 잠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12일 사무관급 승진과 전보인사 명단에 경찰 조사 중인 A씨가 과장급 승진대상자로

포함돼 있어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역대급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더해 중징계받아야 할 공무원을 승진시키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원시는 이번 인사에서 두 달 만에 7급으로 승진시켰던 시장 비서를 다시 1년 만에 6급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징계나 인사처분을 할 수는 없었다”며, “직원들의 상실감과 사회적 동요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회는 A씨의 승진 여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7일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사위원회는 A씨의 승진의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남원시는 이 결정을 존중해 직위 승

진을 취소하고 새로운 승진심사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남원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과 함께 진상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남원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말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공무원 3대 주요비위(성비성 비위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개시가 통보되면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앞당길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운전과 갑질은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갑질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무원 규정상 음주 측정 거부는 정직 이상 중징계 사안으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엔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황토배기 고구마 말랭이 ‘득템’ 하세요

고창군 고구마연합-편의점 CU ‘득템’ 출시...이달부터 매장 공급

고창군이 고창황토배기정정고구마연합과 국내 최대 편의점 CU와 손을 잡고 고구마 말랭이 ‘득템’<사진>을 출시했다.

이 고구마 말랭이 상품은 고창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오븐에 굽고 가공해 만든 제품으로 CU의 PB브랜드인 ‘헤이루’로 이달부터 전국 1만 8000여 매장에 공급된다.

득템은 쫄면과 식감에 고구마향을 입혔고 당도까지 높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고창군은 설명했다.

고창군은 기존 고구마 말랭이 제품의 경우 소비기한이 짧아 장기보관이 어려웠던 과는 달리 ‘득템’은 레토르트 살균, 질소충전 등 공정을 진행해 고구마의 색감과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크게 향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성형섭 고창군 농축협력과장은 “CU와 전북특



별자치도간 상생협력 일환으로 고창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소외이웃 살피러 찾아갑니다”

9월까지 독거 어르신·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고창군이 여름철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를 보살핀다.

고창군은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지속되자 오는 9월까지 독거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 계층의 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고창군보건소는 폭염에 취약한 건강 취약민을 사전 파악해 건강위험군으로 선정했다. 12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 보건업무 42명을 구성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일일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한다.

유명수 고창군보건소장은 “방문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학교장·행정실장 대상 업무지원센터 설명회

정읍교육청, 늘봄학교 등 5개 분야



정읍교육지원청이 최근 지역내 학교장과 행정실장들을 대상으로 학교업무 센터 확대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읍교육지원청 제공>

정읍교육지원청은 정읍 지역 학교의 교(원)장, 행정실장 등 대상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업무 안내 설명회를 실시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설명회는 학교업무지원센터 설립 취지인 학교행정업무경감을 통해 교원들이 수업에 더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학교 인력 채용지원, 교육활동지원, 교육환경정비, 늘봄학교운영, 교육활동 보호 등 총 5개 분야에서 학교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인 늘봄학교를 위한 행정업무와 그동안 접해 되었던 교편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교편보

호 업무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곽잔욱 학교업무지원센터장은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설립된 목적을 생각하면 학교행정업무경감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업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하는데 있다”며 “센터를 통해 학교행정업무 행정, 예산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고향사랑기부금 ‘선한 영향력’

미래인재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24명 뉴질랜드 문화 탐방



남원지역 중학생들이 고향사랑기부금 후원을 받아 뉴질랜드로 출발했다.

남원시는 고향사랑기부금 후원을 받는 미래인재 중학생 해외영어캠프가 출정식(사진)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출정식에는 참여학생과 학부모, 신명기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여교사와 시 관계자 등 60여명이 함께했다.

남원 미래인재 중학생 해외 영어캠프는 지역 학

생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인재 양성 사업으로 남원교육지원청에서 2024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캠프는 남원 관내 중학교에서 선발된 2학년 학생 24명이 참여한다. 17박 18일 일정으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케이스브룩 공립 중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홈스테이를 통해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개관 10년’ 정읍 상교작은도서관 새단장

정읍시 상교작은도서관이 개관 10년을 맞아 정읍시 체육트레이닝 센터 2층으로 이전했다.

새롭게 단장한 상교작은도서관은 310㎡(94평) 규모로 50석의 열람석과 6000권의 도서를 소장해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는

게 정읍시의 설명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 동화구연, 아트세상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차예방교실-100세 인생, 즐거운 노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상교동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영화상영과 생활요가, 한공(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종목인 궁도를 접목해 개발된 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도 열린다.

정읍시 도서관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